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4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11일 (음력 5월 28일) 수요일

## 광주·전남 단체장·지방의회 '민주당 독점'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로 장악됐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당인 이른바 '슈퍼 민주당 1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 되는데다, 1당간 '짬짜미' 정국으로 과거 구태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광주전남지역 정국에 따르면 이날 전남도의회 의장선거를 비롯해 22개 전남 시, 군의회의 의장단 선거가 마무리됐다.

의장 선거 곡성 1곳 무소속 빼고 민주당 싹쓸이

1당 체제 '짬짜미' 정국, 과거 구태 재연 우려

무소속·민주평화당 입성 8곳 전남 단체장 주목

이날 전남도의회는 민주당 이용재 의장을 비롯해 김한중 이만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이 모든 자리를 싹쓸이 했다.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의회 민



꽃망울 터트린 강진 보은산 연꽃

10일 강진군 강진을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입구 연꽃단지에 백련(白蓮)과 홍련(紅蓮) 등 화려한 연꽃들이 탐스런 꽃망울을 활짝 터트렸다.

민주당 의장단 등 1당 체제가 확고히 굳힌 셈이다.

전남지역 22개 기초의회 중 곡성군의회를 제외하고 21곳이 민주당 소속 의장으로 채워졌다.

곡성군은 민주당 단체장에 무소속 의장이 유일하게 당선됐다.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5개 구정 역시 민주당 일색으로 시장 구정장, 의장이 1당으로 라인업을 완성했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전후해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12년만에 양당체제를 구축, 새로운 정국을 마련했으나 2년여만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의회간 짬짜미가 우려되고 있다.

일당체제 구축되면서 집행부와 의회간 비판과 견제를 통한 균형잡힌 구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 일당 독점구조 정당체제에서 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사례가 많아 더욱 그렇다.

그나마 무소속이나 민주평화당이 입성한 전남지역 단체장이 주목된다.

22개 시군 중 무소속 권오봉 여수시장, 무소속 정현복 광양시장, 민주평화당 송귀근 고흥군수, 무소속 정종순 장흥군수,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 민주평화당 명현관 해남군수, 민주평화당 이윤형 함평군수, 무소속 박우량 신안군수 등 8곳이 민주당 의회와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정치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일당체제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정치적 이혜나 개인적 야망으로 인해 견제와 균형이 아닌 짬짜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호화관' 공관

김영록 전남남도지사가 기존의 호화관 한옥 공관을 애락하거나 용도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이 고조.

김 지사는 10일 취임 첫 전남도 실국장정책회의에서 "도지사 한옥 공관은 상징성이 있고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인력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옥 도지사 공관은 공간이 크고 개방형이라 인력과 경비가 많이 소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관용도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거나 마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협상 소용도 도지사가 되겠다. 도민 제일주의와 알맹이통하다"면서 "도민이 행정에 기대고 도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자료사진=뉴스1



호화관 공관에서 살랑게 거시기하네



공관이 쪼개 거시기하긴 했지만

시민들



같은 내 얼굴은 머가 된다

박종영/이낙연

## 전남도, 지속가능 발전위해 '산촌진흥 10개년 계획' 수립

낮은 소득·인구 과소화·고령화로 어려움 겪어...760억 들여 4대 전략 16개 과제 추진

전남도가 낮은 소득, 인구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촌진흥 10개년 계획(2018~2027)을 확정, 시행한다.

10일 전남도가 발표한 산촌진흥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산촌의 경관자원 개발, 청정인산물 고부가 가치화, 산촌관광 지원관리, 산촌리더 양성과 마을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매력있는 산촌', '융복합의 산촌', '체험휴양 산촌', '상생발전 산촌' 등 4개 전략 16

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소요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760억 원이다.

전남지역 산촌은 17개 시군 53개 읍면 540개 마을로 이뤄졌다.

면적은 31만ha로 전남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산촌은 '산림기반법'에서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 인구 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106명/km) 이하,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19.7%) 이하인 곳으로 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존의 산촌 개발사업이 생활환경 개선 등 기반 조성에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산림휴양과 치유 등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산촌마을 조성으로 산촌 거점권역을 육성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촌경관을 조성한다.

또 주민소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촌특구를 조성할 계

획이다.

이와함께 산촌 주민뿐만 아니라 귀산촌 예정자, 도시민을 위한 소프트웨어, 산촌마을 역량 강화사업에 집중기로 했다.

전남도는 산촌마을 간 연대 강화를 위해 산촌 포럼 등을 통해 전남 산촌마을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광주·전남 숲 해설가 협회와 전남도 산도입업인 등과 멘토-멘티 제도를 구성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촌의 기반이 되는 유·무형의 산림자원을 잘 살려 살고 싶은 산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참새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곡루, 파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원 산동 구간부터 뚝이계-기단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